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윤_
파견국가	스웨덴	파견도시	외레브로
파견대학	Orebro University	파견기간	2016년 8월~2017년 6월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i>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p> <p>Orebro university는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버스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해있다. 한적하고 사람이 붐비는 동네는 아니고,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15분정도 가면 시내에 갈 수 있다.</p>
2016-2학기 수업	<p><i>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i></p> <p><i>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i></p> <p>한 교수가 한 학기 내내 강의를 진행하는 한국과 달리 외레브로 대학에서는 한 과목당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교수가 아닌 경우도 있다.) 여러 명인 경우가 있다.</p> <p><International management></p> <p>이 과목은 전공으로 인정을 받았다. 조별발표가 두 번 정도 있었다. 특정 기업을 선정하여 그 기업의 경영전략을 발표했다. 개인적으로 피피티는 한국 친구들이 더 잘 만드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깔끔하기만 하면 피피티의 내용이 더 중요하지 꾸밈을 보지는 않는 것 같다. 하지만 피피티 안에 글을 너무 많이 적으면 좋아하지 않는다. 발표를 위해 조별모임을 가질 때 말할 것을 미리 준비해 가면 좋다. 수업은 많지 않았고 어렵지는 않았다.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서 봤다.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시험을 봤다.</p> <p><Academic Writing></p> <p>이 과목은 교양으로 인정을 받았다. 발표는 없었다. 조별로 활동을 하긴 한다. 조원들이 서로가 쓴 글을 봐주고 개선할 점이나 잘 쓴 점을 찾아준다. 파이널 과제를 위해 과정을 하나씩 진행을 했는데 주제가 약간 어려웠다. 수업과 과제를 위해 읽어야하는 자료들이 있었는데 나에게겐 어려웠다. 강의가 흥미롭지는 않았다. 필기시험은 없었다.</p> <p><Gender Equality and Nordic Welfare State></p>

	<p>이 과목도 교양으로 인정을 받았다.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이 있으니 각국의 양성평등에 대하여 대화를 하는 시간이 많았다. 스웨덴의 양성평등 정책에 대하여 배울 수 있다. 나는 친구와 함께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정책을 비교하는 리포트를 썼다. 이 리포트가 파이널 과제였다. 필기시험은 따로 없었다.</p> <p><Supply Chain Management></p> <p>이 과목은 전공으로 인정을 받았다. 겨울에 수강한 과목인데 사실 수강이 아니다. 이때가 12월~1월인데 약간의 겨울방학이 있는 시기라 수업은 거의 없었다. 대신 지정된 책을 보고 리포트를 써야하는데 양이 많다. 나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여행하면서 할 수 있는 리포트는 아닌 것 같다. 만약 이 과목을 신청하게 된다면 미리 다 끝내고 여행가는 것을 추천한다. 이것도 조별로 리포트를 쓰는 것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여행을 가기 때문에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을 하며 과제를 했다. 강의가 없는 과목이라 추천하지는 않는다. 필기시험은 없었다.</p>
2017-1학기 수업	<p><i>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i> <i>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i></p> <p><Swedish Language and Culture 1></p> <p>이 과목은 교양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 과목은 스웨덴어를 가르쳐 주는 수업이 아니다. 나는 스웨덴과 한국의 주된 언어가 무엇인지, 제2외국어는 무엇인지에 관해 리포트를 썼었다. 또한 Swedish Culture인 만큼 Gender Equality 수업과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었다. 필기시험은 없었다.</p> <p><Swedish Language and Culture 2 ></p> <p>이 과목도 교양으로 인정을 받았다. 1처럼 스웨덴어를 가르쳐 주는 수업이 절대 아니다. 왜 강의 이름에 Language가 들어간 것인지 모르겠다. 매주 스웨덴 영화를 감상하고 주어진 질문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했다. 조별과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꽤 괜찮은 영화들을 보여준다. 영화를 좋아하고 스웨덴 영화를 접한 적이 없었다면 들어보면 괜찮을 것 같다. 수업은 큰 부담이 없이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없었다.</p>
프로그램 운영	<p><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 <i>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i></p> <p>오리엔테이션 기간이 꽤 길다. 3주 이상 되는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으며 각자 Fadder group이 생겨서 그룹 안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게 된다. Fadder group에 있는 fadder들은 교환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고 모르는 것들을 알려준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도 꾸준히 만나서 영화를 보거나 놀러가는 그룹도 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i>현지 기후 및 유의점</i></p> <p>8월에 도착했을 때는 추웠지만 몇 주 정도는 반팔을 입을 날씨였다. 겨울에는 따뜻한 옷이 반드시 필요하다. 눈이나 비는 예고 없이 올 때도 있으며 3월에도 눈이 왔던 걸로 기억한다. 겨울에는 해가 정말 빨리 저서 어두운 시간이 많았고 여름이 다가올 즈음에는 백야현상이 있어서 해도 늦게 지고 새벽에도 밝았다.</p>
안전	<p><i>현지 안전 상황</i></p> <p>Orebro는 꽤 안전한 편이다. 소매치기를 당한적도 없고 다른 특별한 위험은 느끼지 못했다.</p>
숙소	<p><i>학교기숙사(O)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i></p> <p><i>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i></p> <p>학교를 다니는 내내 캠퍼스 안에 있는 기숙사인 Studentgatan에서 생활하였다. 한 코리도에 8명 정도가 거주하며 1인 1실이다. 방 안에는 화장실이 있고 키친은 공유한다. 처음 기숙사에 들어가면 코리도 사람들끼리 모여서 청소 규칙을 만든다. 코리도의 분위기는 층마다 다르고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나뉜다. 보통 다른 나라 교환학생들이 많은 경우는 활발한 경우도 있지만 스웨덴 친구들이 많은 코리도는 조용한 편이다.</p>
식사	<p><i>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i></p> <p><i>외부식당 () 직접 요리 (O) 기타 ()</i></p> <p><i>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i></p> <p>스웨덴의 마트 물가는 한국보다 저렴한 편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재료를 사서 직접 만들어 먹는 경우가 많다. 마트도 걸어서 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기 좋은 위치이다. 오븐, 인덕션, 냉장고, 기본 식기구들이 구비되어 있어서 요리하기 편하다. 그 외 레스토랑이나 음식점에서 사먹으면 가격이 좀 있는 편이다.</p>
교통	<p><i>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i></p> <p>캠퍼스 안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걸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다. 스웨덴은 거의 모든 곳이 평지여서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가기 편하고 학교 앞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가기도 편하다. 스톡홀름이나 다른 도시를 가기 위해서는 bus4you, Swebus, SJ(기차) 사이트에서 표를 예매하여 이동한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인천(ICN)-스톡홀름(ARN)-----	약 630,000원
	스톡홀름(ARN)-인천(ICN)-----	약 550,000원
Fees	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	
	*오리엔테이션 Fee-----	약 200,000원
보험료	자매대학에서 원하는 보험을 샀는지,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사갔는지 여부 및 보험 비용을 알려주세요.	
	*어시스트 카드 H5 (365일)-----	약 300,000원
숙소	기숙사비는 학기마다 지불 1학기-----	약 2,200,000원
	2학기-----	약 2,200,000원
식비	만들어 먹는다면 한 달에 20~30만원이면 충분하다.	300,000 X 10 약 3,000,000원
교통비	Orebro 교통카드 충전 시 한 번 탈 때 성인요금으로 19kr(크로나)정 도 지출되며 카드를 찍고 3시간 이 내에 타면 환승이 가능하다.	
책값	책은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는 것 들이 많았다.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E-book을 이용했다.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 가기 전 짐은 미리미리 싸두는 게 좋다. 출국기간에 닥쳐서 싸려면 급해서 빼먹는 것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스웨덴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있을 것은 다 있다. 그러니 다 싸들고 무겁게 갈 필요 없다.
- 걸어서 15분 위치에 마트도 있고 시내에 나가면 H&M도 있다.
- 와이파이 공유기는 챙기는 편이 좋고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기내용 캐리어를 하나 챙겨오는 것이 좋다.
- 처음 방에 들어가서 불을 켜면 주황색 전등이어서 어둡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점차 적응이 되니 너무 불편해하지 않아도 된다.
- 고추장, 된장, 고춧가루, 기본라면 등은 중국마켓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참기름은 없었다.)
- 한국어로 된 책을 한권정도 가져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 코리도 키친에는 포크만 있기 때문에 젓가락을 챙겨오면 좋다.
- 한 학기동안 같은 과목을 매주 같은 시간에 똑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한국과는 달리 외레브로 대학에서는 매주 강의시간과 강의실이 변경된다. 그러니 시간표 사이트에 들어가서 잘 확인해야 한다.
- 교수님들과는 주로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한다. 자주 확인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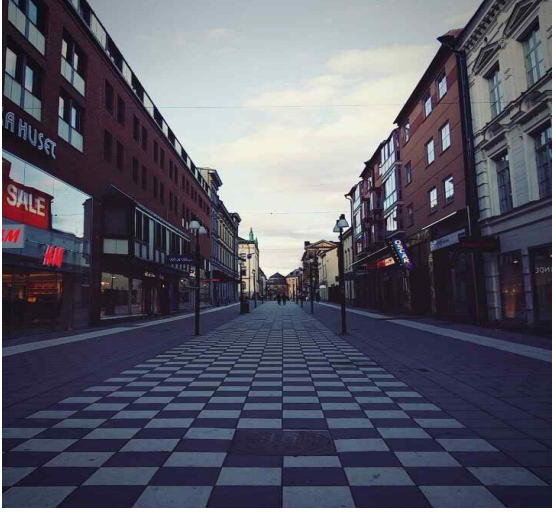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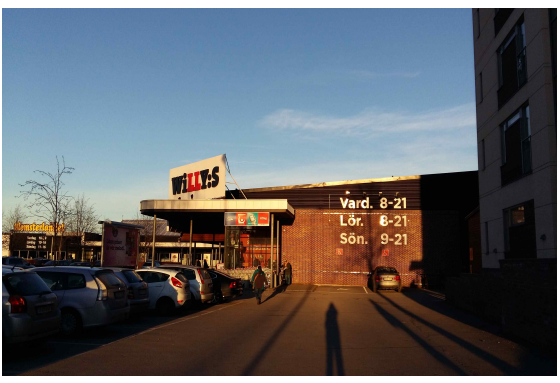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돌아 온지 한 달이 넘었다. 스웨덴에서 찍은 사진을 보다보면 정말 다시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학교 기숙사(studentgatan)는 1인 1실이라 생활하기 편했고 키친시설도 좋았다. 수업을 듣는 것 보다는 조별과제와 리포트 작성에 시간을 더 투자했다. 대부분의 수업들이 일주일에 몇 번 없다. 학교에 가게 되면 fadder그룹 친구들을 만날텐데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먼저 다가가면 좋다. 초반에 액티비티도 많이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아한다. 여행도 틈날 때마다 다니면 좋다. 교환학생 ESN을 위한 여행 프로그램(노르웨이, 러시아 등등..)도 있는데 나름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다. 교환학생들끼리는 영어를 쓰지만 마트나 일상생활에서 스웨덴 사람들은 스웨덴어를 쓴다. 스웨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영어로 질문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는 문제가 없다. 외레브로에는 아랍사람들이 정말 많다. 동양인은 별로 없고 인종차별을 느낀 적도 없다.

뭐든 자기하기 나름인 것 같다. 언제나 기분이 좋을 수는 없지만 일 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이니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여행하고 하루하루를 즐기면 좋겠다. 화이팅!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 외레브로 시내</p>	<p>↑ 외레브로 대학교 도서관</p>
	
<p>↑ 외레브로 아레나(아이스하키경기)</p>	<p>↑ 외레브로 대학교 건물</p>
	
<p>↑ 외레브로 성</p>	<p>↑ 외레브로 Willys 마켓</p>